

TV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MBC 엄기영 사장 등 임원 8명 일괄 사표

오늘 이사회서 재신임 논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진진)는 엄기영 사장(사진) 과 이사 및 감사 등 MBC 임원 8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를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표는 엄기영 사장과 김세영 부사장(권성본부장 겸임), 송재종 보도본부장, 이재갑 TV제작본부장, 박석희 경영본부장, 문장환 디지털본부장, 한귀현 감사, 김종국 기초실장 등 8명이 냈다. 김 이사장은 "사표를 모두 수리할지 모두 남겨둘지는 내일 가봐야 한다. 아직 방향이 서지 않았다. 이사와 감사 등 8명의 임원이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를 10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해 사표 수리 여부 및 교체범위를 공식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까지 사표를 낸 것은 9일 오전까지 비서실 등 최측근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를 비롯해 간부진들은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를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엄 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여는 등 예정됐던 사내 일정을 소화 중이며,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겨놓은 채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MBC 내부에서는 엄 사장이 최근 방문진으로부터 '뉴 MBC 플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대체로 관측했다. MBC의 한 간부는 "어떤 위압이 있었다기 보다는 평소 오픈과 양심적인 성품의 엄 사장이 방진진에 부사장과 본부장의 사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사표도 함께 낸 측면이 강하다"고 전했다. 방진진은 10일 오후 2시 화곡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들 임원진의 재신임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바둑협회장배 활발한 백, 움츠린 흑 최강부 준결승 1국 4보 (52~74) White: 선계성 6단 Black: 신희원 5단.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commentary.

EBS and EBS플러스1, 2 program schedule table listing various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음 10월 24일 己丑). Daily fortune teller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horoscop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English listening practice (Did't you recognize my voice?), 2. Japanese reading (あなたとこっくりだわ), 3. Chinese reading (驕傲), 4. Korean reading (騎虎難下). Includes audio and text exercises.